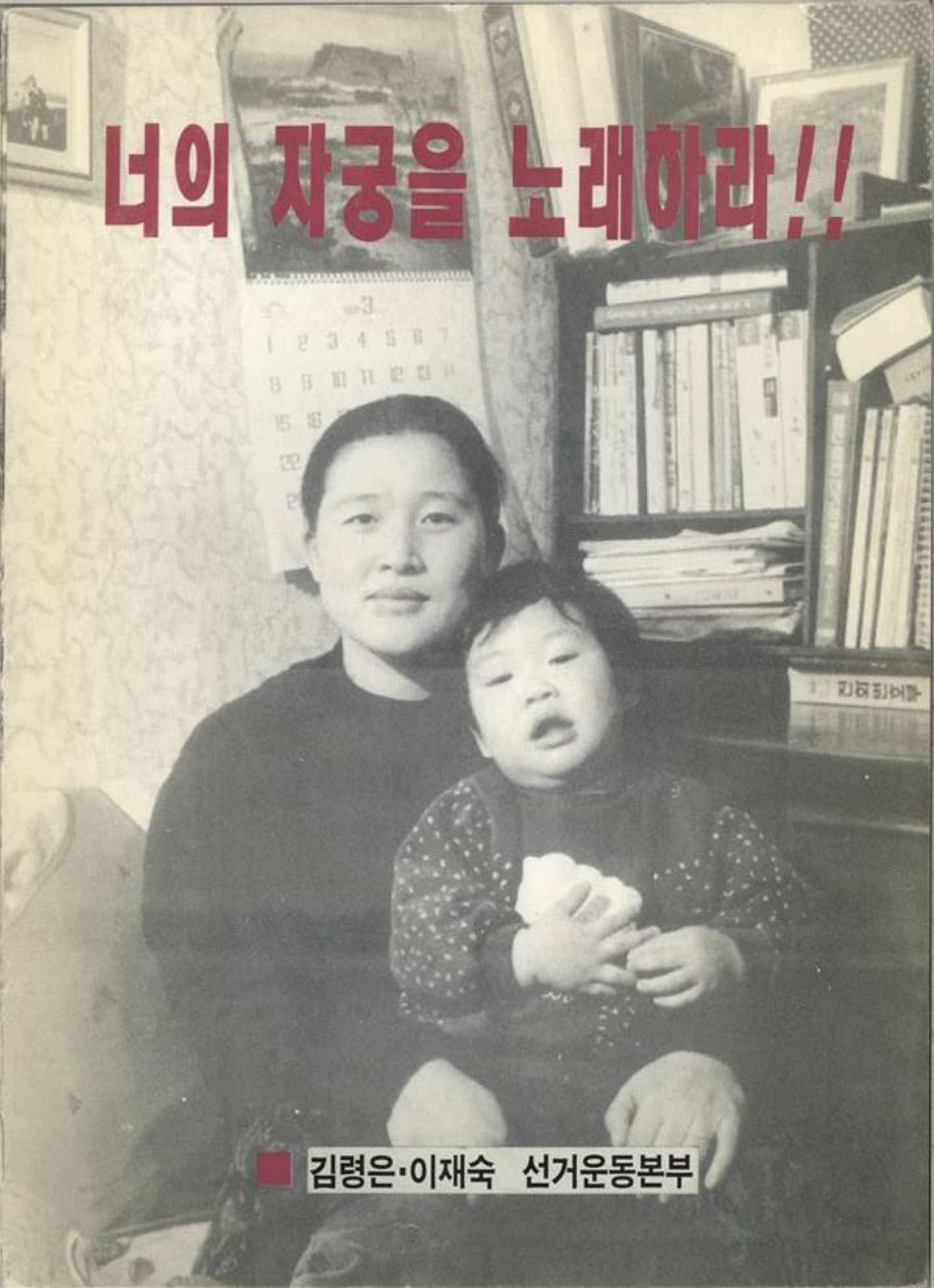




너의 자궁을 노래하라!!



■ 김령은·이재숙 선거운동본부



여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4학년이 되니 더욱 뼈저리게 느껴 집니다.

왜 취업문턱에서 여자라는 한계를 느껴야 하는가?

솔직히 우리 사회의 여성은 남성의 능력에 비해 뒤떨어집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결혼과 동시에 접어치우고, 남성들 사이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일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더구나 우리 어머니 — 후남이 어머니로 대표되는 — 들은 자신과 같은 성인 우리 딸들에게 자신들의 굴레를 그대로 물려주려 하십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요람이자, 가장 큰 질곡입니다.

어머니들은 자신을 표현할 줄 모르십니다.

자식들에게서만 자신을 보려고 하십니다.

그런 어머니들의 딸인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온 자궁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머니들에게 하나의 노래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노래는 현 시대에 일그러진 성문화의 잡음들을 잠재울 아름다운 자장가 일 수도 있고, 우리를 억압하는 성차별의 굴레를 끊어낼 우렁찬 투쟁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부활! 제9대 총여학생회에 입후보한 제가 큰소리로 선창을 하겠습니다.

여자, 남자를 떠나서 그 노래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울려 퍼질 때까지 우리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의 딸들이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힘차게 뛰어놀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 정입후보자 령은 —

목글의 순서

어느 여학생 이야기 /2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곳입니다. /3

총론 /3

다음의 두 광고를 비교해 보십시오. /6

여학생취업준비위원회 /8

대졸여학생 취업현황 /9

다양한 여성문화와 학술활동 /10

자신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1

여학생들만의 요구가 있습니다. /12

김영삼정권의 여성 노동정책비판 /13

종이웃 공주 /16

령은이와 재숙이 /18

어느 여학생 이야기

<사례 1>

어느날 기계공학과 동숙이는 수업시간에 M 교수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교수님: 여자는 대학을 나와도 소용이 없다. 여학생이야 졸업하면 시집이나 가야지

동숙이: 취업 추천서도 남학생만 주시면서 기까지 죽이시는군!

에이 열받아 진짜 시집이나 가?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다르게 키워집니다. 여자아이의 장난감은 주주인형이나 소꿉놀이이고 남자아이는 로보트나 자동차를 갖고 놀습니다.

이들은 성장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을 습득합니다.

여자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뒤 적당한 남자(~士자가 붙으면 좋겠지?)를 찾아 시집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남자들은 출세나 사회적 성공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위의 <사례 1>은 단편적인 예입니다.

<사례 2>

동은이네 과 개강잔치날! 얼큰하게 분위기 익었을 때 K 선배가 술병에 손가락을 꽂고 노래를 시작했다.

K선배: 영자의 손목이 변소간의 손잡이 더냐? 이놈도 잡아보고 저놈도 잡아보고 영자는 정말 좋겠네?

동은이: 아니 저걸 노래라고 부르는 거야 동남아?

동남이: 저게 무슨 뜻이야? 난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이니?

동은이: (내가 미쳤지. 내송 10단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니).

성에 대해서도 여자와 남자는 다른 규범을 가집니다. 남자의 외도는 능력이고, 여자의 외도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자는 성에 대해 무지할수록 순결하다고 여겨집니다. 음란가요를 부를 때 강하게 항의하면 "필 좀 아나보지?" 라는 식으로 대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2>의 경우 좀 극단적으로 순용하는 학우의 경우입니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는 곳입니다.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왜곡된 현실 속에서 여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동악 여학생들만의 특수한 요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이 여학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학생 또한 취업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며, 군대문화의 연장으로서의 술자리 문화에 만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취업문제 대책 등은 졸업준비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의 이해와 요구에 비해 여학생에 관한 부분은 미약한 현실입니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우 일반에 대한 고민들을 동아내에 확산시키고,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문화, 여성정책 등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왜곡된 사회현실을 여성의 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총여학생회는 많은 성과를 꾀어왔습니다. 총학생회 여성부가 되기도 했고, 올해는 총여학생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상황까지 직면했습니다.

그렇다고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가 기존의 기구속에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성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한 활동영역을 벌여내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자치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담는 것이 주된 활동이라 할 때 총학생회의 여성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2천 5백여 여학우의 생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흐름과 사업, 그리고 안정적인 집행체계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집행부로서의 여성부가 이부분을 담당 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총론 - 삶, 사회 그리고 여성

1. 여성으로 이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배우고 열심히 외우는 학문은 거의 태반이 남성의 시각으로 남성중심의 역사관 속에서 쓰여진 것이다. 민주주의 발흥기라고 알려져 있는 고대 아테네를 여성 시각에 입각한 역사관으로 한번 살펴보자. 아테네는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실현시킨 나라였다고 우리는 배웠다. 그러나 아테네는 여성과 노예에게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했던 나라였고, 또한 이런 노예제로 인해 직접민주주의가 존립가능한 나라였다. 그 당시의 여성은 노예와 다름없었고 오로지 남성에게 의해 보호 받는 연약한 애완동물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스파르타라고 하는 아테네의 적국은 제도상으로는 귀족과 평민의 차별이 심하였지만 여성도 한 사람의 무사로 인정 받았던 나라였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세계사를 다시 재고찰 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의 특정관점이나 내용은 역시 남성중심으로 쓰여져 있고, 지금의 지배계급의 자기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물론 아테네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우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역사관이 얼마나 남성중심적인 것이고, 여성의 삶에 대한 기록은 주류 역사관 속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994년을 사는 지금의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은 기회평등이라는 법

문구에 의해서는 매우 자유로워 보인다. 그리고 거의 노출풍적인 패션은 매우 전위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성의 역사를 배우지 못하였다. 우리는 여성을 모른다. 우리는 남성을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없다. 정치, 사회, 문화, 예술등 인류의 역사를 배우고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만한 유산이 우리가 배운 교육과 삶에는 없다.

결국 우리는 우리자신의 삶과 유리되어 있는 역사와 전통을 배워온 것이다. 이속에서는 결코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척할 수 없다. 절대로! 우리는 이제 반쪽짜리 역사를 다시 재구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전한 역사와 전통속에서 새로운 인간성과 함께 희망찬 21세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만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자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반쪽짜리 인류역사의 복원, 이것이 부활 제 9대 총학생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21세기 미래이다.

2. 연약한 척 하지마!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남자에게 매달려 팔장을 끼고가는 남녀의 모습.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남자이고 집안을 지키는 사람은 여자이다.

이또한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박혀 있는 생각이다.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연약하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속에서 언제나 느끼는 부분이다.

이 모든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이다.

그런데 임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남녀의 성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결합되는지 또 여성모두에게 순결을 지키려는 의식보다 성욕이라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알고있는 여학우가 우리 동대에 얼마나 될까?

자신을 모르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

앞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의식하고 표현되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자신을 실현하기 전에 우리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밖에서 주입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에게겐 억압일 수 밖에 없다. 부활! 제 9대 총학생회 선거는 남성과 차별되는 여성을 찾기위한 표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찾기위한 하나의 몸짓인 것이다.

3.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섹시하게 입을 벌리고 키스를 갈구하는 여성잡지 표지의 여인, 거대한 기계의 소음속에서 피곤한 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 청량리 588에서 몸을 팔러 길거리에 서 있는 여자, 오늘은 무슨반찬으로 남편의 투정을 무마할까 고민하는 주부, 자신의 일을 확실히 갖고 자신있게 살아가는 듯한 프로여성.

우리시대의 여성들을 유형화하면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까? 참으로 다양하게 우리사회의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 모든 여성들이 동일하게 우리사회속에서 여성으

로서의 한계를 맞보게 된다. 남근숭배의 종교를 가진 우리나라 어느곳에 있던지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난관 - 바로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려면 계급논의는 불가하다. 그러나 역시 성불평 문제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모순이다. 자본주의 생산체계의 기본단위인 가정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핵심기관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전담하고 있는 가사노동은 우리사회에서 가치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임금으로 그 노동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공식적으로 임금으로 계산되어지지 않는다. 이는 실제 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치까지도 전락시킨다. 성불평등의 해소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생산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변화와 함께. 그러나 이는 여성의 정치세력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마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인상을 위해 자본가와 정부를 향해 투쟁하는 것처럼 우리 여성들도 자신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세력화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없이 결코 우리는 여성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부활 제9대 총학생회는 이런 사회의 핵심모순인 성불평등문제를 바로 이곳 동악에서 풀어나가고자 한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변화와 우리 주변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두 광고를 비교해 보십시오



Essex

비즈니스맨의 성공신화를 만나다. 버킹엄

BUCKINGHAM



생·활·용·용·기·동·제

Geloid

"어제 저녁 사랑받았어요"

여름 휴가에 필요한 시대 —
시원스런 시원한 바람, 주변의 따뜻한 물결,
일그리는 자연의 향기,
연휴를 기다린 그리워 고장은 한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기억들을 일깨워 주었다.
오늘 저녁 그날이든 여름이든 달달한 밤하늘에서
언제나 그에게 고맙게 향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
"미모, 휴가에 잘 어울리죠?"
"그대 고향에 온 거 같아요"

원래 아로마
가미는 생활공간
그로써 언제나
향기가 있습니다.
풍기향하게 그대이든
생활은 향기롭게
그대이든

Johnson
제일종심제

여학생 취업 준비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와 여학우의 긴밀한 결합

-여학생들의 취업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현실 진단과 최소한의 문제 해결을 졸업준비위원회(약칭 취준위)와의 긴밀한 결합과 단결된 여학우들의 힘을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학우의 두 손에 취업정보를

-여학우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조사, 취합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학우들을 위한 정보는 매우 미약하며, 그러한 정보의 소용자체가 부족합니다. 취준위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야와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예를들어 방송국이나 언론에 관심이 있는 여학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입니다.

여성취업특강

-여학우들의 능력배양을 위해 여성취업특강을 마련하겠습니다. 여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특강을 마련하겠습니다. 치열한 취업전쟁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여학우가 취업경쟁을 풀기 위해선, 현재의 특강들 보다는 다양하고 질 높은 특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대생 취업에 있어서의 구조적 모순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여야 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활동없이 위의 사업들은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범대 학우들의 경우 잘못된 교육제도 때문에 임용고시가 넘기 힘든 벽으로 다가온다고 생각됩니다.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함께 할 것입니다.

대졸 여학생 취업현황

취업경로별 추천자

전문대학은 남녀별 학교추천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 다. 그러나 4년제 대학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추천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자의 경우 기타부분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것은 결혼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등교육기관 신규졸업자의 진로추이

전문대졸 여자의 취업률은 81년 28.8%에서 91년 68.1%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졸의 경우 81년 47.5%에서 91년 39.4%로 오히려 약 10%정도 감소하여, 대졸여성들의 취업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2고등교육기관 신규졸업자 진로 추이

		1981		1985		1991	
		남	여	남	여	남	여
전문대학	졸업자	100	100	100	100	100	100
	진학자	15.1	5.9	11.0	7.6	8.5	6.4
	취업자	23.1	28.8	35.0	46.1	53.0	68.1
	무직자	9.8	37.2	6.4	25.4	5.2	14.8
	입대자	37.5	-	37.4	-	29.3	-
	미상	14.5	28.2	10.1	20.9	3.9	10.6
대학	졸업자	100	100	100	100	100	100
	진학자	15.4	9.6	12.6	6.1	8.5	6.8
	취업자	52.6	47.5	47.2	29.8	58.8	39.4
	무직자	6.4	23.8	12.5	42.0	21.8	39.6
	입대자	17.3	-	17.4	-	6.4	-
	미상	8.3	19.1	10.1	22.2	4.7	14.2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1, 1986.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1.

표 1취업경로별 취업자 (%)

취업경로	전문대학		대학교	
	남	여	남	여
학교추천	68.5	61.1	38.5	29.9
채용시험	14.7	16.6	41.9	37.7
부모경영사 업 및자영업	6.9	6.0	6.2	9.6
기타	9.9	16.4	13.4	22.8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1.

다양한 여성문화와 학술활동

스스로 창조, 향유하는 여성문화

우리는 다양한 생활문화와 접하여 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해온 문화는 대부분 가부장적인 문화였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창조하고 향유하는 여성문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존의 문화에 대항문화로서 여성문화를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여성문학의 활성화

최근 학우들이 많이 접한 여성과 관계된 소설로는[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등이 있습니다. 요즘 페미니즘을 표방한 소설들이 많이 출판되고, 읽히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는 문화사업으로 여성문화토론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연구 활동 지원

여성과 관련되어 성평등 등의 내용을 매개로 하는 동아리, 연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총여학생회 내에 연구분과를 만들어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해 모두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페미니즘 영화제

요사이 여성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여성의 삶을 읽어내는 영화가 얼마나 될까요? 총여에서는 여성의 삶을 담아낸 영화를 비판 적으로 읽어내고, 이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 보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남학우와 함께 자연스럽게 여성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토론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자신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총여학생회의 사업들을 학우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총여학생회가 펼치는 사업내용을 학우들에게 공개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총여학생회지 발간

매체를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뿌리깊이 박혀있는 성차별의 문제에 대해 총여학생회 연구분과의 성과를 토대로 여성문제 해결의 대안을 함께 모색,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성문제는 사회, 정치, 노동, 문화 등등 모든 영역에 걸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식의 폭은 광범위할 수 밖에 없고,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각 연구분과에서 여성의 새로운 시각으로 여성문제를 분석하여 부문별로 나누어 실행합니다.



이스마일 사무트

여학생만의 요구가 있다

여성문화공간 창출

여학생감실과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여성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여학생감실을 아는 여학우들은 사범대 학우들을 빼고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가치에 비해 유용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여학생감실에 여성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음향시설을 준비하여 여학우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학우들을 위한 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용 자판기 설치

여학생들만의 용품을 판매할 자판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학교밖까지 나가서 용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복위와 협의하여 여성용 자판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여성 노동정책 비판

김영삼 정부의 상징인 '개혁'에 역행하여 가장 비판받는 취약점 노동정책과 맞물려 여성노동정책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993년은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고용불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해였다. 이제 그 불안의 파고는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지상과제에 묻혀 너무 지엽적이고 사소한 걱정거리로 치부되어가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의 여성노동정책을 점검해보자.

1. 고용구조

변화를 통한 이윤확대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는 생산비 절감과 좋은 품질의 상품생산이다. 기술개발 없는 좋은 품질의 상품은 불가능하고 또 개발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인건비 줄이기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인건비 절감의 방

향에서 고용구조를 변화시켜 고용불안을 야기하게 되었다.

1) 정규직의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으로 대체

현대건설 여직원들의 41%는 계약직이다. 91년부터 정규직의 자연감소로 대체되는 여성은 90%이상을 계약직만 채용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 이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시험보고 합격한 후 연수받고 부서에 배치되면 그때서야 계약직임을 알았다고 한다.

임시직 고용의 특징은 임금에서의 현격한 차이다. 기본급 뿐 아니라 상여금이 반 정도에 불과하고, 또 결혼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제 시중은행에서도 임시직이 일반화 될 조짐이다.

사무전문직에서 임시직의 특징은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이다. 미혼여성의 한 임금을 이용해 3-4년 주기로 노동력을 대체해 왔으나, 여직원들의 근속년수 장기화로 고임금화, 승진,

승급 적체에 대처하기 위해 임시작을 도입한 것이다.

2) 손쉬운 집단 감원

노동부는 지난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리해고 등 적극적 감원에 나서 경기침체 초기의 여성 고령자에 대한 인원 정리에서 점차 관리자무직 및 남자 기간산업요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감원 방법은 정리해고가 일반적이다. 희망퇴직자 모집도 정년을 앞둔 여성과 근속기간이 긴 여성노동자가 주로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고용불안의 파고를 낮춘다고 내세운 정부의 고용보험법은 여성노동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 많다. 우선 적용대상이 10인이상의 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영세업체 노동자가 배제되었고 시간제 근로자가 배제되어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 배려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2. 남녀 고용평등법

실천과정의 문제

<미흡한 단일호봉제>

92년에 금융권노조 여성간부들의 노력에 의해 본격적으로 여행원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정부에 힘입어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어쨌든 여행원제도를 철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고용평등과 거리가 먼 사실상의 성별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신인사제도를 용인하고 정책적 지도를 방기해 버렸다. 특히 새정부가 들어선 후 제2금융권에서의 고령법 실현은 학력의 차이를 확대시킨 내용으로 결정되었다.

3. 모성보호문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했고 산전후 건강관리 위한 정기 검진시 생리휴가 활용을 거부했다.

또한 육아 휴직제와 영유아 보호법의 직장탁아소 설립규정을 보면 육아의 책임은 여성에게라는 전통적 성 역할 분업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제 육아나 가정의 책임이 남녀 및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의식의 확산이 필요하고 육아 휴직등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고용기피의 원인을 제공하는 역기능이 되지 않도록 법이 정비되어야만 한다.

4. 고용확대 정책의 실패

여성인력개발과 고용의 적극적 촉진책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존시켜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발하고

합리화시킬 예정이라 하나 이제도의 구체적 예시는 시간제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택근로제, 간호휴가제, 육아후 재고용제 등의 방안이다. 그러나 결국 정규직에서의 탈락 조건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며, 새로 확대되는 직장은 모두 불안전 고용일 뿐이다.

새정부 출범이후 많은 여성정책이 발표되었다. 무엇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아직 실현단계가 아니지만 오히려 기존의 것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었을 때 여성노동자들에게 물리한 것이 바로 시행된다면 문제가 크다.



종이웃 공주

로버트 N. 번커 지음/한영희 옮김

옛날에 슬기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습니다. 공주는 성에서 살았고 비싼 드레스도 많았습니다. 공주는 이제 곧 오만왕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불행한 일이 님쳤습니다. 커다란 용이 나타나 공주의 성을 부수고, 뜨거운 불이 나는 입김으로 공주의 옷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만왕자를 붙잡아 갔습니다.

슬기공주는 용을 쫓아가서 왕자를 구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주는 입을 옷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란 곧 단지 종이가방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종이가방을 주워입고 곧 용을 쫓아갔습니다. 용은 지나가면서 말의 뼈와 불타버린 숲을 흔적으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용을 따라가기란 아주 쉬웠습니다.

마침내 슬기공주는 커다란 문고리가 달린 거대한 문이 달린 동굴에 다다랐습니다. 공주는 문고리를 쥐고 탕탕 두드렸습니다. 용은 코를 문밖

으로 내밀고 말했습니다. "아니, 공주로군! 공주들은 잡아먹기가 좋지. 하지만 난 오늘 성을 몽땅 먹어치워서 이미 배가 불러. 난 아주 바쁜 용이란다. 내일 오너라." 용이 너무 빨리 문을 닫는 바람에 하마터면 슬기공주는 코가 부딪칠 뻔했습니다.

슬기공주는 문고리를 붙잡고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용은 코를 문밖에 내밀고 말했습니다. "저리 가, 공주들을 잡아먹는 것은 좋지. 난 오늘 벌써 성 하나를 몽땅 먹었어. 내일 오너라."

"기다려!" 슬기공주가 외쳤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사나운 용이라는 게 정말이니?" "그렇고 말고." 용이 대답했습니다.

"네 불의 입김으로 숲 열 개를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이야?" 슬기공주는 물었습니다. "암 그렇지." 용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크고 깊은 숨을 들이쉬어 아주 센 불길을 내뿜어 오십 개의 숲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와 멋지다!" 슬기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용은 다시 숨을 더욱 크게 들이쉬었고 이번엔 더 센 불길을 내뿜어 백개의 숲을 태워버렸습니다. "정말 굉장하구나" 공주는 말했습니다.

용은 다시 숨을 크게 쉬었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은 이제 게란후라이 하나 구울 볼 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슬기는 물었습니다. "용아, 내가 십초만에 세상을 날아갔다 온다는 게 정말이니?" "물론이지" 라고 말하고 용은 뛰어올라 십초만에 세상을 날아갔다 왔습니다. 용은 매우 지쳐서 돌아왔지만 슬기는 외쳤습니다. "와 멋지다.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용은 다시 뛰어올라 십초만에 온 세상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너무 지쳐서 말할 기운조차 없었고 그대로 뻗어서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슬기는 아주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봐, 용아." 용은 전혀 움직

이지 않았습니다.

슬기공주는 용의 귀를 세우고 자기의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공주는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이봐, 용아!" 용은 너무 지쳐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슬기공주는 용의 위를 지나가서 동굴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만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공주를 보고 말했습니다.

"슬기공주, 너는 정말 더러워! 너한테선 재 냄새가 나고 네 머리는 형클어졌고 게다가 더럽고 남은 종이가 땅을 옷으로 입고 있구나. 가서 진짜 공주같이 차려입고 돌아와."

"오만왕자" 공주는 말했습니다. "내 옷은 아주 예쁘고 네 머리는 정말 단정해. 넌 진짜 왕자같구나. 하지만 넌 형편없는 애야."

그리고 그들은 결국 결혼하지 않았답니다.